실로암 한인 침례 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SBC)

July 05, 2026, 10:30 a.m.

Ordinary Times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siloamkbc.org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www.siloamkbc.org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 ..... 다같이 All Together

H183 빈들에 마른 풀 같이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H260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Glory to Jesus Who Died

C1036 피난처 되신 주 You Are My Hiding Place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 ..... 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뒤돌아보기 Time to Reflect ..... 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 ..... 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 ..... 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 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 다같이 All Together

마태복음 Matthew 11:16-19, 25-30

설교 Sermon ..... 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내시다 3 Jesus Sends out the Twelve.

III 화답 Response

성찬식 The Holy Communion ..... 다같이 All Together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 ..... 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 ..... 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 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주위에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창세기 GENESIS 24:34-38, 42-49, 58-67

34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36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37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38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42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43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으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44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길으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45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46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47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뉘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브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48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49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58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59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60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어다

61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62 그 때에 이삭이 브엘라해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63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64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65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66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67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시편 PSALM 45:10-17

10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11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12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13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14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15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16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17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THE SECOND LESSON 로마서 ROMANS 7:15-25A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본문 함께 살펴보기

로마서 7 장 15-25a 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치열한 내면의 갈등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울 개인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유혹과 영향력이 남아있음을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는 반면, 우리 육신 속에는 여전히 죄의 법에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영적 전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침내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며 자신의 절망적인 한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해방과 승리가 주어짐을 깨닫는 전환점이 됩니다. 내 힘과 결단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진정한 영적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인간 본성의 한계와 죄의 권세'입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인간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행할 능력은 인간 스스로에게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결단해도,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의 세력을 온전히 뿌리뽑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 내면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성령의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과거의 옛 자아와 육신의 죄성 역시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 두 세력이 매일 충돌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갈등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성령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과 감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참한 무능력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고백은, 내면의 모순과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는데 왜 내 삶은 쉽게 변하지 않을까?" 하며 자책하곤 합니다.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입술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면서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내면의 모순을 경험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러한 영적 갈등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는, 내 결심과 의지력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하는 다짐은 결국 한계에 부딪혀 낙심과 죄책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길은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내 안의 죄성을 다스려 주시도록 매 순간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 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지 말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함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친히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감사를 누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의 소망과 실제 행동이 달라서 갈등했던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내 힘과 결단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했을 때 겪었던 한계나 실패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내 힘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3. 바울은 비참한 탄식 속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세상 염려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불안해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침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한 자답게 정죄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치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SPEL 마태복음 MATTHEW 11:16-19, 25-30

16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17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